

표문화전당 '광주·전남 문화관' 물건너 가나

추진단 "전당 성격과 안맞아" 건물내 설치 난색 건물 밖은 문화재구역 불가 ... 시·도, 계속 협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시·도 공동 문화·전시관 설치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건물 내부에 공간을 두느냐, 문화전당 건물 밖 부지에 마련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6기 상생과제 중 하나로 오는 9월 개관할 아시아문화전당에 시·도 공동 문화·전시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도는 각각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전시관에 지역 문화관광자원, 우수축제, 관광상품, 교통·숙박시설을 안내하는 홍보시설과 지역특산물 전시코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전시관에 영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한 직원 2명을 배치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화·전시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화전당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전당 건물 내에 시·도 공동 문화·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

고 있다. 문화전당의 5개관(아시아예술극장·문화창조원·아시아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민주평화교류원)과 시·도 공동 문화·전시관 간 컨셉트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다. 건물의 유기적인 동선과 운용원리에 따라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교류 창구로서 상징성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시·도 공동문화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문화전당 건물 내부가 아닌 부지에 공간을 마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화전당 건물 밖의 전당부지에 문화·전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해당 부지가 문화재구역

으로 지정돼 있어 건물 등을 지을 수 없게 됐다"며 "전당 건물 내에 문화·전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단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예술극장·문화창조원·아시아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민주평화교류원 등 5개 공간으로 이뤄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오는 7월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일부 개관한 뒤 9월까지 전면 개관할 예정이다. 건립공사는 문화부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박수치는 박대통령-반기문 총장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 개최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총장 내일 개성공단 방문

기자회견서 "국내 정치 안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하루 일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반 총장은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경의선 육로로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 총장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북측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반 총장은 외교부 장관 시절인 2006년 6월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공관장 70여명을 이

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재임 기간에 평양 방북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반 총장은 이날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자살한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날 안전시 송도의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식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차기 대권주자로 오르내리는데 대해 "국내 정치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므로 그런 분들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서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 "저에 관한 추측이나 정치적 행보 여짜 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며 "다음부터 여론조사 기관들도 저를 포함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암서도 AI 의심축 발견

지난 12일 강진에 이어 이번에는 영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견돼 전남도가 긴장하고 있다. 구례에서 지난 3월 5일 마지막으 발생한 이후 50여 일만에 강진에 이어 영암에서 AI가 나타나면서 전남에서 AI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9일 "지난 18일 영암 덕진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AI 의심축이 발견돼 긴급방역조치가 나섰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2일 발생한 강진 중 오리농장과는 19km 떨어진 곳으로 역학 관련은 없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해당 농장의 폐사체 신고에 의해 축산위생사업소에서 긴급하게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AI 의심축을 확인하고, 즉시 가축 방역관과 조동 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광양 도촌·신안 진리 선정

국민안전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광양시 태인동 도촌마을과 신안군 임자면 진리마을이 각각 선정돼 국비 7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19일 "전국 17개 시·도 70개 마을이 신청해 국민안전처 중앙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20개 마을이 선정된 이번 공모에서, 2개 마을을 신청해 모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민 호응도, 거버넌스 구성 등에 평가 배점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응모 시·군 사전 교육, 사업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평가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경제계 인사들 '장흥 주목'

"최고 치유 관광조건 갖춰" 현정은 회장 등 18명 방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희범 LG상사 부회장, 조창현 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 김신배 SK그룹 고문 등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최근 단적으로 장흥을 방문해 회했다.

장흥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계 인사 18명이 최근 군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방문 인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최고경영자(CEO) 과정 1기 원우회가 10주년 워크숍 일정에 따라 지난 15~16일 장흥을 찾았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흥을 찾은 이들 일행은 15일 편백숲 우드랜드 안에 있는 숙소에 짐을 풀고 랜트를 둘러보고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말레길'을 통해 억불산 정상까지 산행을 했다.

우드랜드와 억불산을 본 이희범 LG상사 부회장은 "하늘 아래 최고의 자연"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어 동양 3보리의 하나인

천년고찰 유지 보립사에 들러 사찰에서 직접 만든 야생녹차를 시음하며 일선 주지 스님과 환담을 했다.

이들은 점심때에 맞춰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찾은 기업인들은 관광객들과 섞여 장흥한우, 키조개, 표고버섯을 함께 구워먹는 '장흥 한우삼합'을 맛보기도 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북으로는 금강산, 남으로는 정남진 장흥의 여행상품이 어떨겠느냐"며 장흥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장흥이 최고 치유 관광의 조건을 갖추 있으며, 장흥의 투자유치 여건도 기업이 들어 서기에 분명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우드랜드 토요시장, 보립사 등 뛰어난 관광자원과 함께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선정될 만큼 기업환경도 뛰어나다"며 "내년에 열리는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광주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지하철 조립식 지하 구조물 첫 공개

공사기간 줄이고 비용 절감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으로 확정된 저심도(低深度) 방식의 조립식 지하 구조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광주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심도 지하철을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다양한 안전성 검증을 벌이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총사업비 1조 9053억원이 투입돼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일곡-첨단-수완을 연결하는 총연장 41.9km의 노선이다. 지하 저심도 굴착 방식과 일부 구간의 지상 노면 방식을 혼용해 2024년까지 3 단계로 나누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저심도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은 국토교통부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철도연관으로 2013년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철도연 김기환 원장은 "도시철도 건설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예산도 줄이는 저심도 모듈식 지하구조물 신기술을 통해 저심도 지하철이 국내 지자체에 더욱 확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론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l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